정무부지사,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개편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안 윤곽… '기후에너지국' 신설
기후·환경 분야 정부 고위 관료 출신 개편 부지사 물망
사무 대폭 조정… 15분 도시·특별자치분권추진단 폐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정무부지사를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이름과 기능을 변경하고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는 등 첫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기후경제수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위성곤 제주지사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청 조직을 기존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 체제로 개편하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부지사 명칭이 12년 만에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바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도지사에게 임용권한이 있는 부지사 명칭은 환경부지사에서 환경·경제부지사로 변경된 후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조정됐으며 이후 12년째 유지됐었다.

기능도 대폭 조정된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는 신설하는 기후에너지국을 포함해 기존 혁신산업국과 기후환경국에서 각각 명칭과 기능이 조정된 미래산업국과 환경자원국 사무를 총괄한다. 이중 혁신산업국 사무는 원래 행정부지사 소관 업무였다. 대신 기존에 정무부지사가 맡았던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사무가 행정부지사에게 이관된다.

신설하는 기후에너지국은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탄소 중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육성 등을 도맡는다.

민선 8기 도정에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업무는 혁신산업국이, 탄소중립 업무는 기후환경국이 각각 맡았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국으로 흡수된다.

지사와 손발을 맞출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는 기후·환경 쪽에서 일한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신규 조직도 대거 생긴다. 도지사 직속으로 기본사회추진단이 새로 생기고 기획조정실 내 혁신관리기획관이 신설돼 성과와 공약, 공공기관을 관리한다.

도민소통과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담당관과 제2공항상생지원단도 새로 만들어진다.

또 제주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을 추진할 제주브랜드담당관과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AI행정혁신추진단도 신설된다.

경제활력국 내 기업투자과는 기업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소상공인과와 통상물류과는 소상공인물류과로 통합된다.

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도한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 민선 8기 오영훈 전 지사 공약에 따라 도입된 15분도시 추진단은 사라진다. 또 한시조직으로 오는 31일 운영을 종료하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도 폐지된다.

이밖에 건설주택국은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도내 최초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인 제주음악당 운영 준비 인력이 정원에 반영된다.

한편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안은 이달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기간 내에 제출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녹차밭 산책 지난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후반기 국회 개막… 제주 현안 해결 주목

제주 국회의원 농해수위·법사위 배정 속 역할 관심

22대 국회가 6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임기를 본격화한 가운데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등 주요 국회 활동을 통해 제주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입법을 빠르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5일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6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며 "즉각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AI 미래산업 육성까지 국회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100일간 진행되는 9월 정기국회부터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되고,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후반기 국회에서 제주 지역 김한규(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문대림(민주당·제주시갑)의원과 김성범(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제주 현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등은 행정안전위원회, 제주 항공 좌석 부족 문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 현안 등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어서 제주 의원들의 적극 대응이 가능할 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도 시작부터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교육청, 새로운 교육 지표 제막식

'모두가 주인공' 새 이정표 달고 출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교육청의 새 이정표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고의숙 교육감은 지난 3일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지표 제막식에서 이러한 지표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며 "새로운 제주교육을 여는 선언이자 도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고 교육감을 지원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제18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 교육감과 함께 교육청 본관 건물 밖에 부착된 가림막을 내리며 새로운 지표를 공개했다.

고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돼 새로운 제주교육을 열어 달라"며 "도민들에게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동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축사에 나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새로운 교육 지표가 제주교육의 희망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지표 제막식에 이어 취임 이후 첫 주간기획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관행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 내용을 보고받기보다 공약과 관련한 정책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부서 간 협업과 정책 논의를 강조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고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청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조천 창열사를 참배하며 사흘간의 취임 행사를 마무리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1일부터 2일까진 학교 현장을 찾았으며, 3일 지표 제막식 전에는 제주호국원, 최정숙 교육감 묘소, 제주4·3평화공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오는 11일 민선 9기 첫 도민소통 '타운홀 미팅'

ICC 제주 탐라홀A서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새로운 도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A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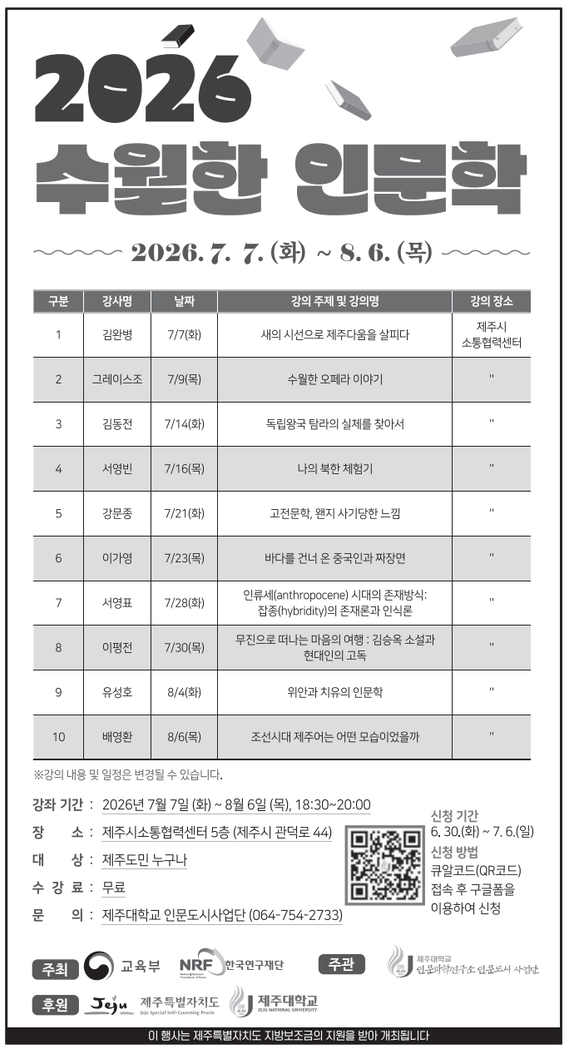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핵심가치와 7대 전략과제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과 정책 제안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민선 9기 7대 전략과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제주의 미래와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예정이다.

7대 전략과제는 ▷민생 ▷기본사회 ▷인공지능(AX) 대전환 ▷기후·에너지 ▷인공지능 행정혁신 ▷인재양성 ▷갈등조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도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성과 중심의 실용 도정을 본격화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도민은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큐알코드 또는 아래 링크(https://forms.gle/j9eHn7MV7LgLtZHv9)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민선 9기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타운홀미팅 신청 시 제안한 과제나 건의사항은 행사 후 제주도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민선 9기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할 예정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